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1화		
1. 인연의 눈			
<p>혁.혁.혁. 거친 숨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고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지만 최 동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멀리서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돌아보지 않았다. 잡히면 안 된다. 아직은. 오늘이 첫 임무였다. 그동안 얼굴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에 최 동에게 맡겨진 일이었는데, 미행이 붙은 것은 의외였다. 정보가 샌 걸까? 어디까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렸다. 다행이다. 시야를 가리는 어둠이 제 몸을 감춰주길 바라며 한참을 달리던 최 동은 어느 순간 눈앞에 나타난 건물 사이에 몸을 숨겼다. 혈떡거리는 숨을 참으며 좁은 건물 벽 사이에 몸을 붙인 최 동 앞으로 남자 둘이 뛰어갔다. 모자와 목도리로 가려진 얼굴 속에서 긴장한 눈동자만이 반짝거리며 미행자들의 뒤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최 동은 조심스럽게 어둠속에서 나와 남자들과 반대편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겼다. 아직 완전히 따돌렸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그들은 오늘 밤이 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동안의 계획이 허사가 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최 동은 항구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조금씩 내리던 눈발이 함박눈으로 변하며 거리에 쌓이기 시작했다.</p> <p>상하이 항구가 보이는 큰 길에는 마차와 전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최 동은 많은 인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남자 둘이 저 앞에 보였다. 역시 예상대로 그들은 끈질겼다. 최 동은 때마침 다가오는 마차 옆을 따라가며 남자들의 눈을 피해 길을 건너 상가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식당과 술집이 이어진 거리는 시끄러웠다. 골목 안쪽으로 향하는 최 동의 모습이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에 모습을 드러냈다.</p> <p>추운 눈바람에도 곧추 세운 등과 굽지 않은 어깨, 그리고 쟁 걸음이 웬지 강인함을 풍기는 그녀, 지금은 최 동이지만 20년 전 조선에서 엽동이라 불리던 여인이다.</p> <p>골목 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양식 술집 앞에 멈춰 선 최 동은 비장한 눈빛으로 외국어로 된 간판과 입구를 바라보았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슴에 품은 권총을 확인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p> <p>‘처음 오시는 분이라 했는데 무사히 도착하셨을까.’</p> <p>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고 최 동은 2층으로 난 계단을 올라갔다. 술집으로 들어서자 갑작스런 온기가 얼어있던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 따뜻함에 긴장이 풀어질 것만 같아 마음을 다잡으며 최 동은 홀 안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매캐한 담배연기가 가득 찬 실내에는 서양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넓은 홀에 테이블이 놓여있고 중국 전통의상과 서양식 양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군데군데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었다. 피아노가 놓인 무대의 반대쪽 홀 끝에 길게 자리한 바 테이블, 그 왼편으로 방이 있는 복도가 뻗어 있었다. 몇 개의 취한 눈길이 막 들어선 최 동을 향했다가 초라한 그녀의 행색에 비웃음을 띠고 돌아섰다. 바텐더만이 술을 따르면서도 이미 그녀가 누구라고 짐작하는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최 동은 그에게 다가가서 품 안의 쪽지를 꺼내 건넸다. 쪽지의 내용을 확인한 바텐더는 복도 쪽을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p> <p>“맨 끝 방입니다.”</p> <p>최 동은 보일 듯 말 듯 끄덕이고는 복도를 지나 맨 끝 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푹푹 푹푹 문을 두드렸다. 짧은 정적 후에 들리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p> <p>“들어오십시오.”</p>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에 창가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남자의 등이 보였다. 중국인들 보다 한 뼘은 큰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진 그는 낡은 양복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뒷모습이었다.

“동제사에서 일하는 최 동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천천히 몸을 돌리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 동의 눈빛은 충격으로 흔들렸다. 술집의 어둡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10년이 넘었지만 머나먼 타국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얼굴. 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 짙은 눈썹과 깊은 눈, 오흘한 콧날을 가진 그는 분명 주학이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송이라고....”

최 동에게 다가오며 손을 내밀던 주학은 갑자기 몸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에 멈춰 섰다.

“최동지? 무슨 일입니까?”

도망치려는 듯 문고리에 손을 대던 최 동은 그러나 현실을 깨닫고 입술을 지그시 물며 돌아섰다.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갇웃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주학의 눈길.

예전의 날카롭던 눈매는 사라졌지만, 궁금함과 의심을 담은 그 눈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다. 너무도 그립고 그리웠던 눈길과 얼굴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 누구요?”

결심한 듯 천천히 모자와 목도리를 풀고 주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최 동의 얼굴을 확인한 주학의 눈빛 역시 놀라움을 가득 안고 커졌다.

“업...동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는 주학의 눈앞에 선 여인은 분명 업동이였다.

모자를 벗자 흘러내린 검은 머리와 머투색 까만 눈동자, 선이 고운 입술이 복잡한 감정을 담은 채 떨리고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어도 주학에게는 지난 오랜 시간동안 떠올렸던 어린 업동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에 겹쳐져 보였다.

최 동, 아니 업동은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당신은 분명히....”

주학이 어떻게 상하이에 있는 것일까. 그것도 독립 군자금 전달하러 온 광복회 밀사를 만나기로 한 이 장소에. 둘 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시간을 되돌리기라도 하듯 서로를 향한 눈동자에 회한이 서리고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지 잊을 만큼의 침묵이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시끄러운 소음도 사라진 듯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순간을 넘어 두 사람의 기억은 머나먼 타국을 떠나 20년 전 조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

겨울이라도 해가 쨍한 날에는 햇볕이 따듯했다. 언 손을 녹일 만큼은 아니어도 웅기종기 모여 있으면 서로의 온기와 함께 등이 시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곤궁한 살림살이였고 강박해지는 사람들이 마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남는 것 보다 빼앗기는 것이 더 많았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선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했고 이웃들은 서로 도우려 했으며 간혹 어느 집 울타리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었다. 사람들은 현재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이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17세 소녀 업동의 가슴에도 희망이란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결혼한 주명아씨를 따라 봉서마을로 온 업동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뻐다. 어릴 적 주명아씨가 업동에게 글을 가르쳐주려 했지만 주인마님은 업동이 책을 기웃거리기만 해도 몸종 주체에 글은 언감생심이라고 하며 매를 들었다. 하지만 업동은 포기하지 않고 몰래 글을 배웠다. 누구에게도 글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다. 모든 몸종과 하인들이 글을 알고 있었기에 주명아씨는 업동에게 글을 배우라고 했다. 그 후 업동이 순식간에 글을 깨친 것으로 알고 기특해 한 아씨와 서방님은 책들을 빌려 주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었다. 눈이 뜨이고 머리가 환해진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다. 근래에는 책방에서 책을 사오는 심부름도 맡게 되었으니 아씨의 결혼은 업동에게는 행운이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업동은 가볍게 종종거리며 저잣거리를 지나쳤다. 추위로 발갥게 언 땀 위에서 생기를 품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기쁨으로 더욱 빛났다. 품에 안은 책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씨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호호’

그러나 업동의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 마르고 여린 손을 뿌리치는 어른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흉년도 아닌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장터를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는 일이 허다했다.

업동은 멈춰 서서 아이들과 품 안의 책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잘근거렸다. 뭔가 고민 있을 때면 보이는 업동의 버릇이었다.

**

고부와 맞닿아 있는 금구현 화봉리 봉서마을. 앞으로는 김제평야를 내려다보고 뒤로는 상두산 자락이 버티고 있는 마을 안쪽에 주명의 시택인 김영표의 집이 있었다. 종2품의 벼슬을 지낸 집 안이자 100마지기 이상의 논을 가진 부호이지만 명성과 달리 소박하고 규모도 크지 않은 집이었다.

주명의 남편 인혁과 처남 주학은 사랑방에서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선이 가늘고 날카로운 인상인 주학과 반대로 인혁은 서글서글한 눈매의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강인함을 풍기는 청년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꼳꼳한 자세는 어린 나이임에도 범접하기 힘든 기운을 풍겼다. 아마도 부모님을 여의고 집 안을 꾸려나가는 가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학보다 2살 연상이지만 아내의 오라비인 주학에게 깍듯한 인혁이었다. 하지만 상투를 천정에 묶고 책을 볼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으면서도 과거에는 관심이 없는 인혁을 주학은 이해할 수 없었다.

“형님, 조병갑이 다시 군수로 오다니요. 온갖 황포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인혁은 처가인 고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말해 뭐하겠나. 농지에 물 대주겠다며 만석보를 쌓고는 세금을 거둬 착복했지.”

“보 공사에 노역한 백성들한테 임금도 안줬다면서요.”

“5년 동안 세금을 안 걷는다 해서 황무지를 개간했더니 가을에 세금을 매겼다네..”

“대동미를 쌀 대신 돈으로 걷어놓고 질 나쁜 쌀을 사서 상납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차액을 챙기려고 한 일이지. 그 뿐 아니라 없는 죄 만들어 재산을 뺏기도 했다네. 재산 없는 쇠락한 가문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 건지.”

두 사람의 대화가 마치 관소리의 아니리를 주고받는 형상이 되어감에 따라 감정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귀를 닫고 있는 겁니까?”

“신임 군수가 부임하지 못하게 조병갑이 뒤에서 주모했다는 얘기가 남도에 파다하다네.”

열을 올리던 두 사람은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자가 다시 오면 고부가 어찌될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가 있겠나. 조대비마마의 조카이자 이조판서의 사돈 아닌가.”

“고부 군수 자리도 7만냥에 산 거라는 말이 그저 떠도는 소문이겠습니까. 물론 고부만이 일이 아니지요. 조선팔도 어디나 권력을 등에 업던가 돈만 있으면 자리에 오르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던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주학은 말끝을 흐리며 도포 소매자락을 매만졌다.

과거시험장에 뇌물이 없으면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는다는 얘기에 부친이 사돈댁에 금전을 부탁하는 서신을 들려 보냈지만 자존심이 강한 주학은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 수탈을 견디겠습니까!”

“이 사람 큰 일 날 소릴.. 다시 민란이라도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눈을 치켜 뜬 주학이 낮지만 강한 어조로 인혁을 다그치듯 물을 때였다.

밖에서 주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상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주명이 다과상을 들고 들어섰다.

“아니 어찌 네가 직접?”

“오라버니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기쁜 마음에 제가 들고 달려.. 아니 걸어왔어요.”

해맑게 웃으며 상을 내려놓는 주명의 모습에 날카로웠던 주학의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번진다.

“오랜만에 남매 상봉인데 부인도 같이 얘기 나누시지요.”

“네.”

차를 따라주는 주명을 바라보는 주학의 눈길에 다정하면서도 걱정스럽다. 단아한 주명의 얼굴은 주학과 마찬가지로 선이 고왔지만 여린 심성을 보여주듯 선한 눈매는 오라비와 달랐다. 흰 피부로 인해 더욱 붉어 보이는 입술은 항상 웃음기를 담고 있었다. 가냘픈 몸매 뿐 아니라 마음도 여리고 순수하기만 한 동생이었다. 양반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밝게 자라준 아이, 오라비의 출세를 위해 돈 많은 사위를 원한 아버지가 줄을 대어 시집보낸 애처로운 아이였다.

“잘 지냈느냐? 몸은 괜찮고? 아픈 데는 없느냐?”

연이은 물음에 밝게 웃는 동생이지만 그 눈이 슬픈 듯 느껴지는 주학이었다.

“혼인한 여동생이 아직도 어린 아기인줄 아시나 봅시다. 오라버니는.”

“그렇구나. 네가 나 보다 어른인데 말이다. 그래도 낯선 타지로 시집 온 동생이 왜 아니 걱정되겠느냐.”

“저는 잘 있으니 염려 마시어요. 시부모님과 서방님도 잘 해주시고 업동이가 있어 친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낸답니다.”

업동의 이름이 나오자 일순간 주학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찔거리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라버니, 업동이가 이제 글을 다 떴답니다. 원래 영특했던 아이잖아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특하게. 이제는 책방 심부름을 도맡아...”

“책을?”

주학의 표정이 굳어지자 재잘대던 주명의 얼굴에 뜨끔한 기색이 어린다.

“시집 왔다고 어머님 명을 냉큼 어긴 게냐?”

“오라버니...”

두 사람 사이에 찬 기운이 일자 인혁이 나섰다.

“형님. 저희 집에선 일하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아버님 생전에 그리 하라 하셔서요.”

“흐흠. 사돈 어르신 말씀이시면... 출가외인이니 시택 가풍을 따라야겠지.”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

세 사람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흐른다. 복잡한 표정으로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인혁의 방 문갑 위에 놓인 책들을 훑던 주학의 눈길에 한 곳에 멈추었다.

‘동경대전? 저것은?’